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

옷의 힘

THE POWER OF CLOTHING

[특집]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기쁨을



17
WINTER

UNIQLO
Life Wear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아티스트
제이슨 폴란이 준비한 바나나,
종이컵, 비치볼, 티셔츠, 펜.

뉴욕 맨해튼,
홈리스 쉼터에 사는 아이들이
뉴욕 5번가 유니클로에 왔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

그림을 그려요

제이슨 폴란과 함께



© Jason Polan

뉴욕에서 요즘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아티스트, 제이슨 폴란.

그는 매일 스케치북과 펜을 들고 거리에 나선다. 길거리, 카페,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을 그린다.

한 사람을 그리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하얀 종이 위에서 펜으로 그려내는 그의 손길에는 거침이 없다. 특징을 잘 잡아낸 한 사람의 모습이 순식간에 스케치북에 그려지고,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자필 코멘트를 곁들이면 그림은 완성된다.

폴란의 블로그 'EVERY PERSON IN NEW YORK'에는 거의 매일 그림이 업로드 된다. 블로그 명과 같은 타이틀의 화보집도 2015년에 출판되었다. 일을 의뢰받는 곳은 '뉴욕커' '뉴욕 타임즈' 등 전통 있는 잡지와 신문들. 무명 화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명성을 얻게 된 스토리는 80년대에 활약한 키스 해링의 성공담과도 비슷하다.

폴란은 1982년 미시간주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뉴욕에 온

이유 중 하나는 뉴욕 현대 미술관(MoMA)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는 MoMA에서 일하고 싶어서, MoMA에 전시 중인 모든 작품을 스케치해 이력서에 동봉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아쉽게도 채용은 되지 못했지만 그 이후 그는 아티스트로서 인기를 얻게 되어, 지금은 MoMA 이벤트에 초빙되고, MoMA의 홈페이지에는 그의 창작활동이 동영상으로 소개될 정도가 되었다.

그의 그림에 담긴 매력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각자 누구와도 맞바꿀 수 없는 인생을 뉴욕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그의 애정이 망설임 없이 선을 통해 표현된다. 이는 그들의 인생을 긍정하는 힘일 것이다.

블로그에는 다음에 어디에서 스케치를 할 것인지 그의 스케줄이 적혀 있다. 맨해튼의 거리에서 야구 모자를 쓰고 캐주얼한 차림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아마도 제이슨 폴란일 것이다.



Jason Polan × UNIQLO

아티스트 제이슨 폴란과 홈리스 쉼터 아이들이 함께 한 그림교실

뉴욕 현대미술관(MoMA)과 인접한 유니클로 뉴욕 5번가점.

MoMA와 연계한 이벤트도 빈번하게 열려
뉴요커들이 주목하는 곳이다.

photographs by Jason Lewis

미국에서는 해마다 홈리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홈리스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실업, 주거비 폭등, 가정폭력, 화재 등.

집을 잃으면 그날부터 식사할 테이블도, 잘 수 있는 침대도, 씻을 수 있는 욕실도 모두 없어진다.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소파에 앉아 기르던 고양이와 놀 수도 없게 된다. 부모의 사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이는 매우 슬픈 경험일 것이다.

2016년 여름, 뉴욕시가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을 잃고 '쉼터'라 불리는 임시 숙박시설이나 친척 집, 친구 집에 임시로 거주하는 어린이가 이미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중 최악의 상황이다.

유니클로 스태프와 제이슨 폴란의 대화 속



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 홈리스 쉼터에서 임시 거주 중인 어린이들을 유니클로 뉴욕 5번가점에 초대하여, 반나절 동안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게 하면 어떨까?

시작은 단순했다. 제이슨 폴란의 그림이 담긴 티셔츠 기획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점포 한정으로 폴란이 그린 맨해튼 지도를 준비하자', '점포에서 폴란과 그림을 그리며 노는 이벤트를 기획하자' 등, 이런 이야

기를 나누던 중, 홈리스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는 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어린 시절, 전 언제나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들에게도 그림 그리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그려보고 싶어요.'

이런 작은 시도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럼 일단 실행해 보도록 하자.

유니클로 뉴욕 5번가점

MoMA와의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진 옷과 아트가 만나는 장소. 'SPRZ NY' (서프라이즈 뉴욕) 프로젝트로도 알려져 있다. 아티스트별 코너와 이벤트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매장 안에는 스타벅스 커피도 입점해 있다. 금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MoMA 입장료가 무료다. (유니클로 제공)



유니클로 뉴욕 5번가점에 모인 아이들.
 '바나나에 그림을 그린다고? 종이컵에도?'
 '비치볼을 준대!'
 '아무거나 그리라니, 뭘 그려야 할지 고민되네.'
 난처한 표정으로 다른 친구를 관찰하는 아이도 있고,
 진지하게 종이컵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아이도 있다.
 바나나, 종이컵, 비치볼...
 다 그렸으면, 이제 흰 티셔츠에 그려보자.

나도
 보여줘~

Jason Polan × UNIQLO

Art is Eve...



버스 3대가 유니클로 뉴욕 5번가점을 향한다. 아이들은 맨해튼에서 조금 떨어진 브루클린 퀸스에 있는 쉼터에서 버스를 탔다. 버스에 몸을 맡기고 가다 보면 고층빌딩이 뿔뿔하게 들어선 풍경이 점점 가까워진다. 맨해튼이다.

지금부터 대체 무엇을 하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엄마는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학교 공부 같은 건가?

즐리고, 귀찮아.....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런 목소리가 당장이라도 들릴 듯 하다.

오전 9시 30분, 버스가 유니클로 앞에 도착했다.

유리로 둘러싸인 환한 점포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당황스러운 듯한 남자아이도 있는가 하면, 와! 하고 감탄하며 흥미진진해 하는 여자아이도 있다.

여기 옷 가게야? 난 옷이 너무 좋아!

1층과 2층 사이의 넓은 계단에 앉아, 제이슨 폴란과 이벤트 스태프에게 오늘의 '그림 그리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모두들 진지한 얼굴이지만, 스태프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작은 웃음이 터지기도 한다.

'그림은 누가 어떻게 그리든 자유예요.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든 예술이 되지요. 자기 얼굴을 그려도 되고 친구 얼굴을 그려도 돼요. 기뻐던 일이나 마음에 드는 말을 써도 돼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는 것도 없어요. 예술에는 실패도 없고 오답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리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되죠.'

'여러분과 지금부터 함께 그림을 그릴 제이슨 폴란은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 지하철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우연히 만난 모르는 사람들을 매일 펜으로 그린답니다. 이것도 모두 다 예술이예요.'

아이들은 평소 학교 수업과는 다른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진다. 선생님이라기 보다 편한 형, 언니에게 이야기를 듣는 느낌일까요?

'그림을 꼭 흰 종이에 그려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바나나, 일회용 종이컵,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가지고 노는 비치볼, 어디에 그려도 상관없어요. 단, 오늘 집에 돌아가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에 갑자기 그림을 그리면 엄마 아빠는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건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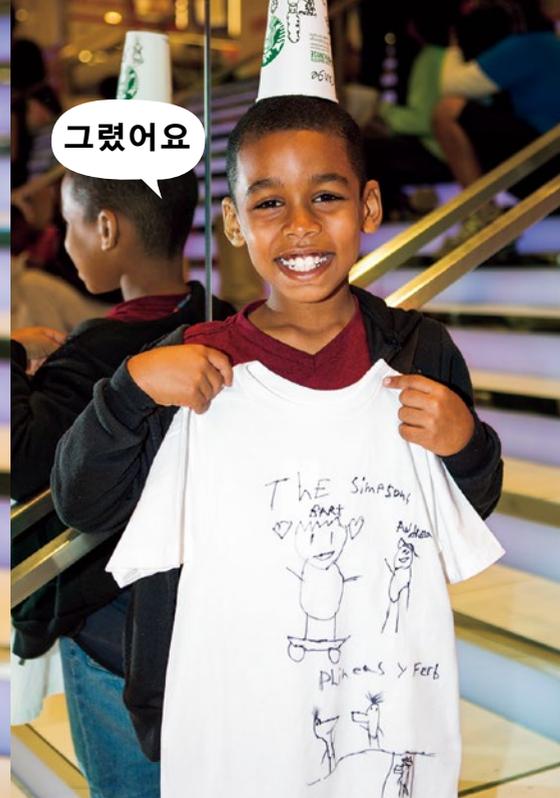
짧은 설명이 끝나고, 아이들 모두에게 검정 펜을 나눠준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간 중간 2층 큰 테이블에는 아이들 수만큼 바나나가 놓여 있다. 자, 그림 지금부터 그림 그리기 시작!

바나나에 그림을 그리는 건 처음이야. 뭘 그리면 좋을까- 고민하는 아이, 바나나를 얼굴 삼아 열심히 그리기 시작하는 아이. 제이슨 폴란은 그런 아이들에게 말을 건넨다.

'재미있는데 '오, 느낌 좋아 '잘 그리네'



내가



그렸어요



유니클로 뉴욕 5번가점에서 쉼터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갈 때와는 사뭇 다르게 시끌벅적 하다.

어땠어?



재미있었어!

바나나, 종이컵, 비치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티셔츠. 처음부터 티셔츠에 그리지 않고, 여러 가지 입체적인 사물에 그리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집중한다. 좋은 분위기의 고요함이 이어진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물을 찬찬히 관찰하는 것이라고, 제이슨 폴란은 생각한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에서, 혹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찬찬히 관찰한다. 누구로부터도 명령 받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자유.

그림을 다 그린 아이들은 각자 성취감을 느꼈는지, 꽤나 만족스러운 얼굴이다.

아이들은 모두 한 명씩 바나나, 종이컵, 비치볼, 티셔츠 그리고 과자 선물이 담긴 종이백을 받고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싣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 갈 때와는 사뭇 다르다. 웃으며 수다를 떨고, 바나나를 먹으며, 모두 환한 표정이다.

‘하길 잘했어!’ 제이슨 폴란도 이벤트 결과에 매우 만족했다. 쉼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빠도 딸의 얼굴을 보고 금세 미소를 짓는다. 짧은 맨해튼 여행이 좋은 경험이 되었음을 실감하는 듯 하다.

빈곤 가정에 대한 지원은 거주환경 제공 및 경제적 보조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에

게는 미래를 꿈꾸는 원동력이 되는 경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칭찬받는 것. 힘겨운 현실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준다면 아이들은 작은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곧 자신감으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 단 몇 시간의 경험이 작은 싹으로 돌아나, 언젠가 크게 꽃을 피우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를 주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유니클로 뉴욕 5번가점은 유니클로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은 뉴욕시 홈리스 서비스국과 연계하여, 1년에 4번 홈리스 쉼터에 사는 아이들을 초대하여 워크숍을 개최한다. 우선 점포와 인접해 있는 MoMA에 가서 개관 전에 전문 큐레이터와 함께 작품을 감상한다. 유니클로의 그래픽 티셔츠에도 사용된 앤디 워홀, 장 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 구사마 야요이 등 MoMA가 전시하는 아티스트 작품을 천천히 감상한 후, 아이들은 유니클로 매장으로 돌아와 티셔츠에 그림을 그린다.

이번에는 프로 아티스트가 직접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스페셜 이벤트를 열었다.

다음에는 누구와 함께 하게 될까?

패션 기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국 유니클로에서는 국내의 정책 및 상황을 파악하고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의 즐거운 경험 「어린이 쇼핑 이벤트」

한국 유니클로에서는 지역사회의 보육원 아이들을 매장으로 초청하여, 직접 원하는 옷을 고르고 구매하는 '어린이 쇼핑 이벤트'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전국 유니클로 점포에서 지금까지 총 33회(2017년 1월 기준) 실시되었으며, 약 1,552명의 아동에게 쇼핑의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쇼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어린이 쇼핑 이벤트'는 단순히 의류를 지원하는 의미를 넘어, 옷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멋과 개성을 찾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의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물합니다.

옷을 통해 한국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유니클로의 사회공헌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유니클로의 '어린이 쇼핑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ompany.uniqlo.kr/csr/shoppingevent/>

지금까지 발간된 '옷의 힘' 책자는
해당 링크에 전 권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uniqlo.com/power_of_clothes/kr/

내일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아이들의 마음에 뿌린 씨앗

전쟁, 빈곤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아이들- 지금 이와 같은 문제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선진국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래의 주인공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유니클로는 '패션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아주 작은 경험으로도 스스로 유연하게 성장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니클로의 어린이 지원은 세르비아 난민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세르비아의 아이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유니클로 임시점포에서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고르는 '쇼핑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때 아이들이 보여준 행복한 표정이, 우리에게 다시금 옷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옷 아주 잘 어울려!' 스태프와 대화를 나누며 옷을 고르고, 특별 제작한 상품권으로 쇼핑을 하는 즐거움. 이벤트를 통해 구입한 옷을 입을 때의 만족감. 아이들은 이 이벤트로 사회 체계의 한 면을 체험하는 동시에, 자신이 직접 고른 옷을 입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옷은 추위나 더위로부터 몸을 지켜줄 뿐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난민 어린이를 위한 '쇼핑 이벤트'도, 홈리스 쉼터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그리기' 워크숍도, 그들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을 직접, 바로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 마음에 언제 어디선가 싹이 틀 작은 씨앗을 뿌린다는 사명감으로, 어린이들의 미래와 가능성을 열어가는 글로벌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에서는, 2014년 봄부터 국내 보육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쇼핑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와 어린이날에 개최되는 이 이벤트를 통해, 전국 각지의 보육원 어린이들이 유니클로 스태프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에 미래로 이어지는 씨앗을 뿌리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옷의 힘'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옷의 힘'은 유니클로의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이번 호부터 아담한 크기로 재단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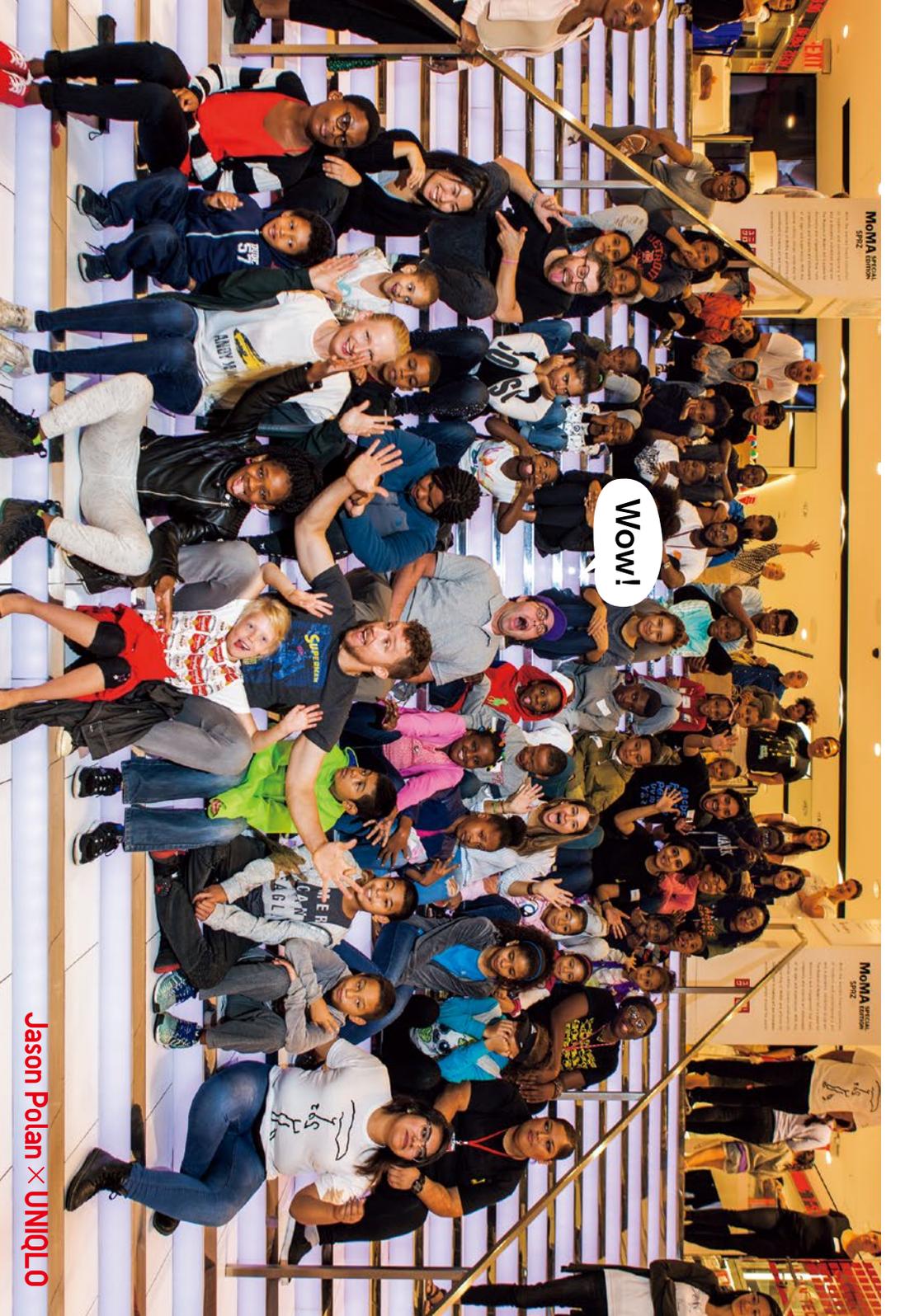
<http://www.uniqlo.com/kr/csr/>

유니클로의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유니클로 CSR

검색





Wow!

Jason Polan x UNIQLO